



2025
사순절 가정예배

아버지께

2025.3.31(월) ~ 4.12(토)



우리 가정은 () 교회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2025 사순절 가정예배 헌금 안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1,000원씩 가정예배 헌금을 모아주세요.

이번 가정예배 헌금은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전개도를 이용하여 가정예배 헌금봉투를 정성껏 만들어 주세요.

* 가정예배를 모두 마치신 후에는 봉투에 담아 교회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회 회 용 금

2025 사순절 가정예배 헌금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1,000원씩 가정예배 헌금을 모아주세요.

모인 헌금은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성탄 소식과 사랑을 나누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름 : ●헌 금 : 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1,000원씩 가정예배 헌금을 드리신 후 체크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선을 따라 자르고
번호순으로 접은 후 풀칠을 하여
봉투를 만들어 보세요.

(1)

(2)

풀
칠

(3) 풀 칠

사순절 가정예배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사순절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 세워나갑니다.



우리 가족의 약속

1.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가족교회의 이름을 정합니다.
2. 예배 인도자는 기도를 하고, 예배에 필요한 성경책, 준비물을 미리 준비 해주세요.
3.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4.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 자녀가 없는 부부 가정이나 1인 가정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예배 에티켓

1.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기!
2. 스마트폰과 TV의 전원은 OFF!
3.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가정예배 순서



찬양 묵상

가족과 함께 찬양을 들으며 귀 기울여 가사를 깊이 묵상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묵상

오늘의 도서 영상을 함께 봅시다.



이번 사순절 가정예배 도서는
'자전거 도둑 (글-박완서/그림-한병호)'입니다.



말씀 읽기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질문하기

가족이 함께 준비된 오늘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기도하기

오늘 말씀과 책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어봅니다.
주어진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3.31.월
첫번째
가정예배

좋은 사람



1인 가정예배 영상



도서목상



오늘의 찬양 :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묵상 찬양 영상

말씀읽기 : 마태복음 5장 13-14절 / 쉬운성경

13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짬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14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도서 묵상

수남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게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대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밝게 비추고 이 땅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하기

- 1)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 2)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기

- 1)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2)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 3)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가정예배에 성실히 참여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Note

4.1.화
두번째
가정예배

나쁜 사람



1인 가정예배 영상



도서목상



오늘의 찬양 :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묵상 찬양 영상

말씀읽기 : 마태복음 5장 43-44절 / 쉬운성경

43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4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도서 묵상

물건을 가져다준 가게 아저씨는 수납이를 어렵게합니다. 수납이에게 있어서 돈을 주지 않는 가게 아저씨는 나쁜 사람입니다.

살다보면 우리가 수납이의 입장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게 주인 아저씨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 남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지 말고 너그러움을 베풀며 원수를 사랑하고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문하기

- 1) 나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어렵게 한 기억이 있나요?
- 2)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나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기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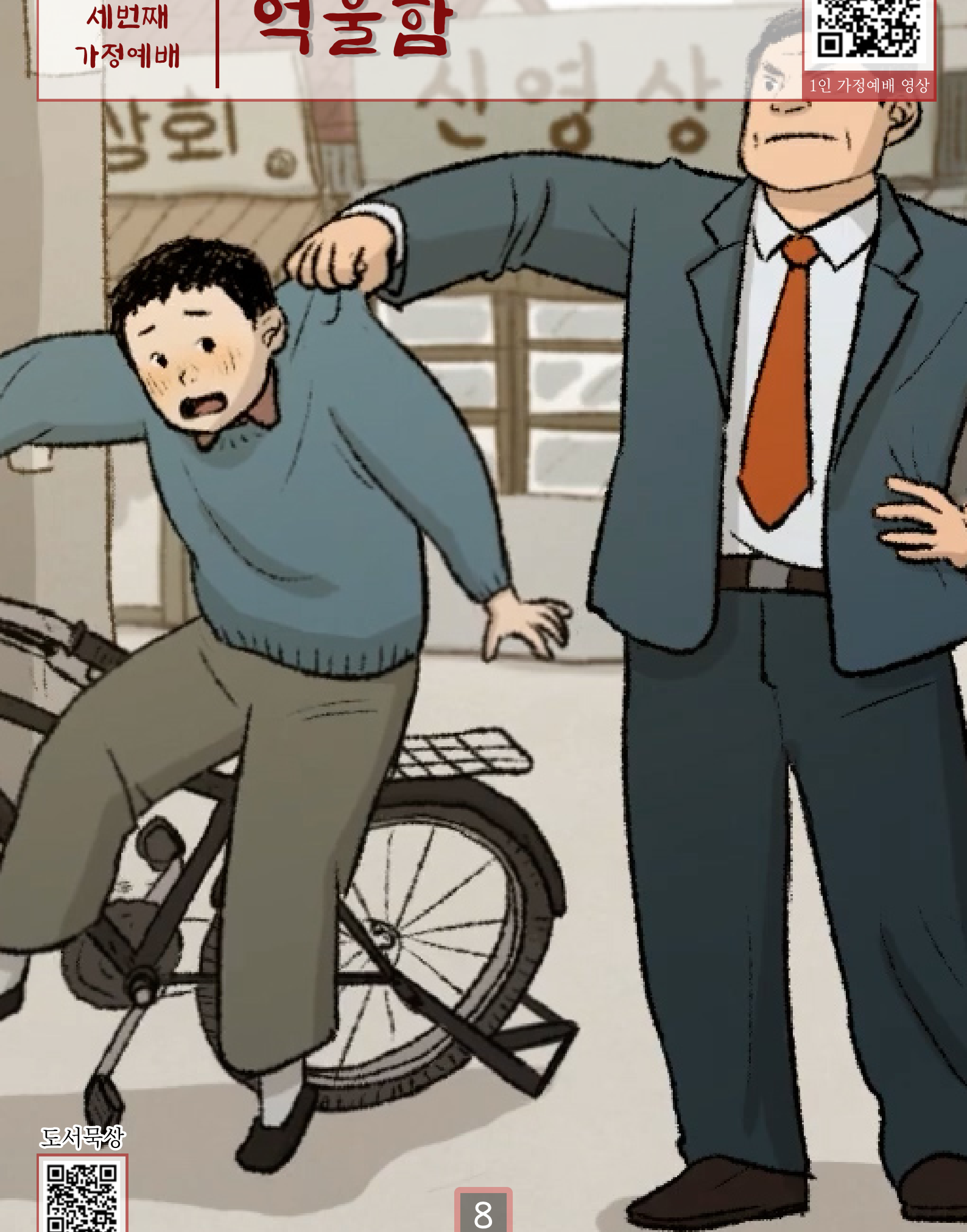
- 1) 내게는 나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게 하소서
- 2)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3) 나쁜 사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Note

억울함



1인 가정예배 영상



오늘의 찬양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묵상 찬양 영상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말씀읽기 : 욥기 1장 20-22절 / 쉬운성경

20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21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
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
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22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
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서 묵상

거센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져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낸 상황에 수남이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이었음에도 배달을 나왔고 힘들게
수금을 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어린 수남의 마음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욥도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회의의 결과로 수많은 가
축과 종들, 자녀까지 하루에 다 잃었습니다. 이 일이 천상의 회의로 비롯된 것이
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욥은 이 상황이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
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 가
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하기

- 1)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혼나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있나요?
- 2)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도하기

- 1) 억울한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
소서.
- 2)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사랑을 손길을 내
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3) 약자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약자들을 돌
아볼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찬양 :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북상 찬양 영상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3.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4.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후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말씀읽기 : 레위기 26장 40-42, 44절 / 쉬운성경

40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
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41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 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42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도 기억할 것이다.

44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도서 묵상

수남이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수남이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가 쓰러졌고, 그 사고로 인해 큰 댓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 값을 치러야할 때,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오늘 레위기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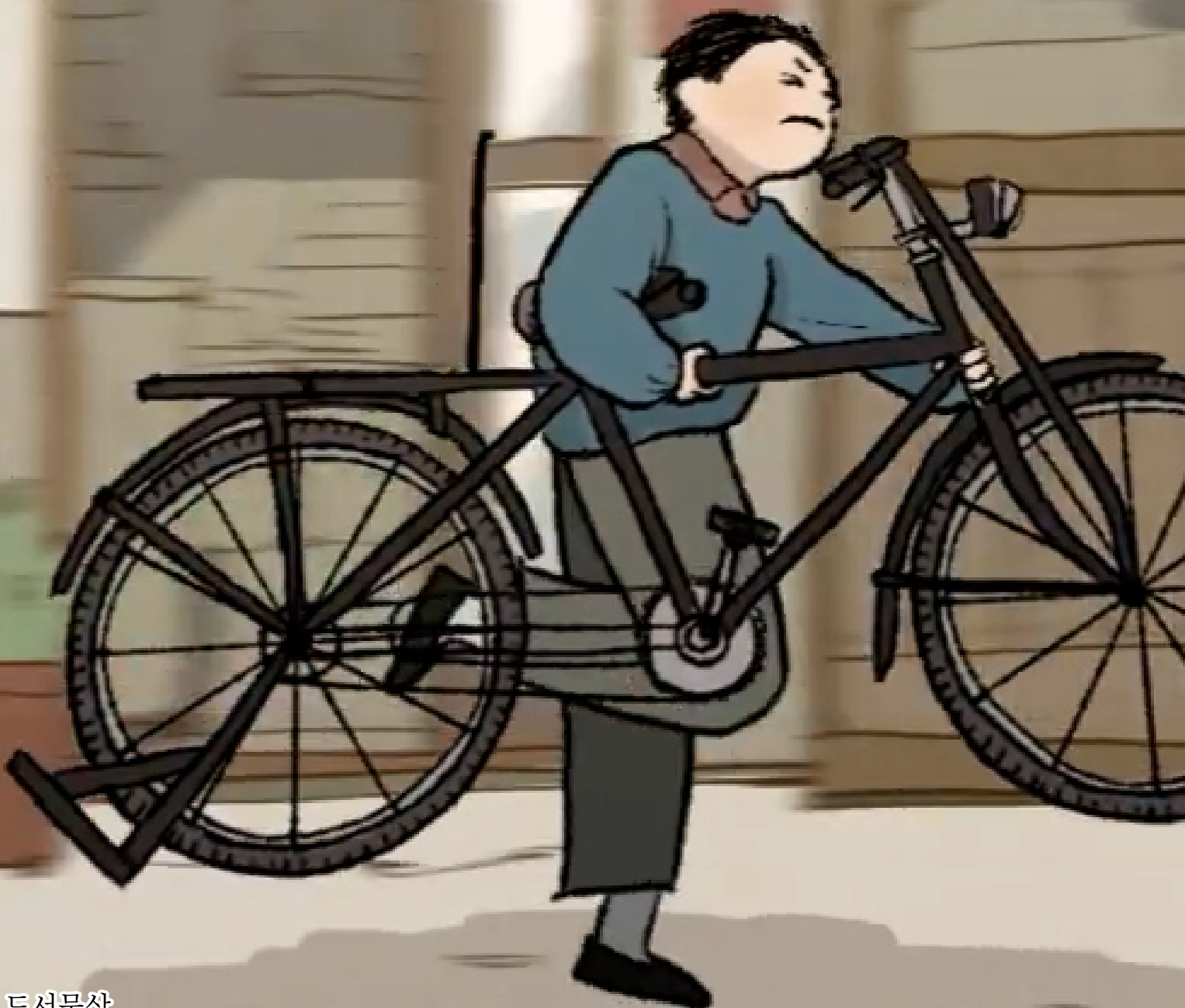
비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고, 이를 해결할 수 없어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그 죄의 값에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과, 용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문하기

- 1)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나요?
- 2)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 것 같나요?

기도하기

- 1) 죄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하게 하소서.
- 2)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 3)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으로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찬양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3.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4.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5.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후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묵상 찬양 영상

말씀읽기 : 요나 1장 2~3절 / 쉬운성경

2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3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옴바 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뱃삿을 낸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도서 묵상

“까짓거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버려라.”라는 주변 사람들의 부추기는 소리가 수남이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수남이는 결국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버립니다. 두려운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앗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므로 자신이 겪게 될 손해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따라 니느웨의 반대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주한 죄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고 외면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문하기

- 1) 내가 만약 수남이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 2) 수남이에게 도망치라고 응원하던 사람들의 조언은 옳은 것인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기도하기

- 1) 억울하고 괴롭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도망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 2) 나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우선하는 믿음 주소서
- 3)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우선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4.5.토
여섯번째
가정예배

아버지께



1인 가정예배 영상



도서무장



오늘의 찬양 : 아바 아버지



묵상 찬양 영상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말씀읽기 : 요엘 2장 12~13절 / 쉬운성경

12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 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13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 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도서 묵상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의 삶은 수남이에게 참 녹록치 않습니다. 정글과 같은 차가운 도시에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린 수남이에게 매우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참 괴롭고 불안한 삶이었습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삶이었습시다. 이에 요엘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불안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해결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문하기

- 1) 나를 가장 불안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 2)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나의 고통과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기도하기

- 1)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 2)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 3)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을 주변에 끼치게 하소서

성전(좋은 사람)



1인 가정예배 영상



★지난 주 **좋은 사람** 도서 목상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월요일입니다.

그 날에, 어떤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읽기 : 마가복음 11장 15~19절 / 쉬운성경

15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16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7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18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9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찬양 : 예수 닮기를



묵상 찬양 영상

내 삶에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말씀 이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당시 성전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예배 때 사용할 제물을 성전 안에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더 쉽게 구하고,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은 것처럼, 주변에서 보기에는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하는 성전이 다른 의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좋은"의 기준은 사람의 편안함, 만족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좋은"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의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기

- 1)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사순절 기간에 내가 과감하게 치워내고 정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기

- 1) 사람의 관심과 인정, 칭찬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2)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 3) 사순절 가정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소서

Note

의심(나쁜 사람)



1인 가정예배 영상



★지난 주 **나쁜 사람** 도서 목상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입니다.

그 날에, 어떤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읽기 : 마가복음 11장 27~33절 / 쉬운성경

27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닐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28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29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너희들에게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30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31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가 '어째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32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3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모르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찬양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봐어도



묵상 찬양 영상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 이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며 묻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되돌려 물어보십니다. 결국 자신들도 무엇이 답인지 모르면서, 그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심하고 깎아 내리려했던 그들은 답을 들을 수도,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 묵상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신경쓰며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숨기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질문한다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기

- 1) 자기만을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했던 나쁜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 2)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기도하기

- 1) 내 안에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을 주소서
- 2) 모든 의심을 떨쳐내시고, 의심했던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로 찬양하게 하소서
- 3) 예수님을 의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소서

배신(억울함)



1인 가정예배 영상



★지난 주 억울함 도서 목상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수요일입니다.

그 날에, 누구도 억울할만한 배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읽기 : 마가복음 14장 10~11절 / 쉬운성경

10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11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 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찬양 : 주는 완전합니다



묵상 찬양 영상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 이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여겼지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에 잡을 방도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찾아와 자신이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말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배신하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잔인무도한 일을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또 제자인 가롯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여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과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때때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시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기

- 1) 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향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2)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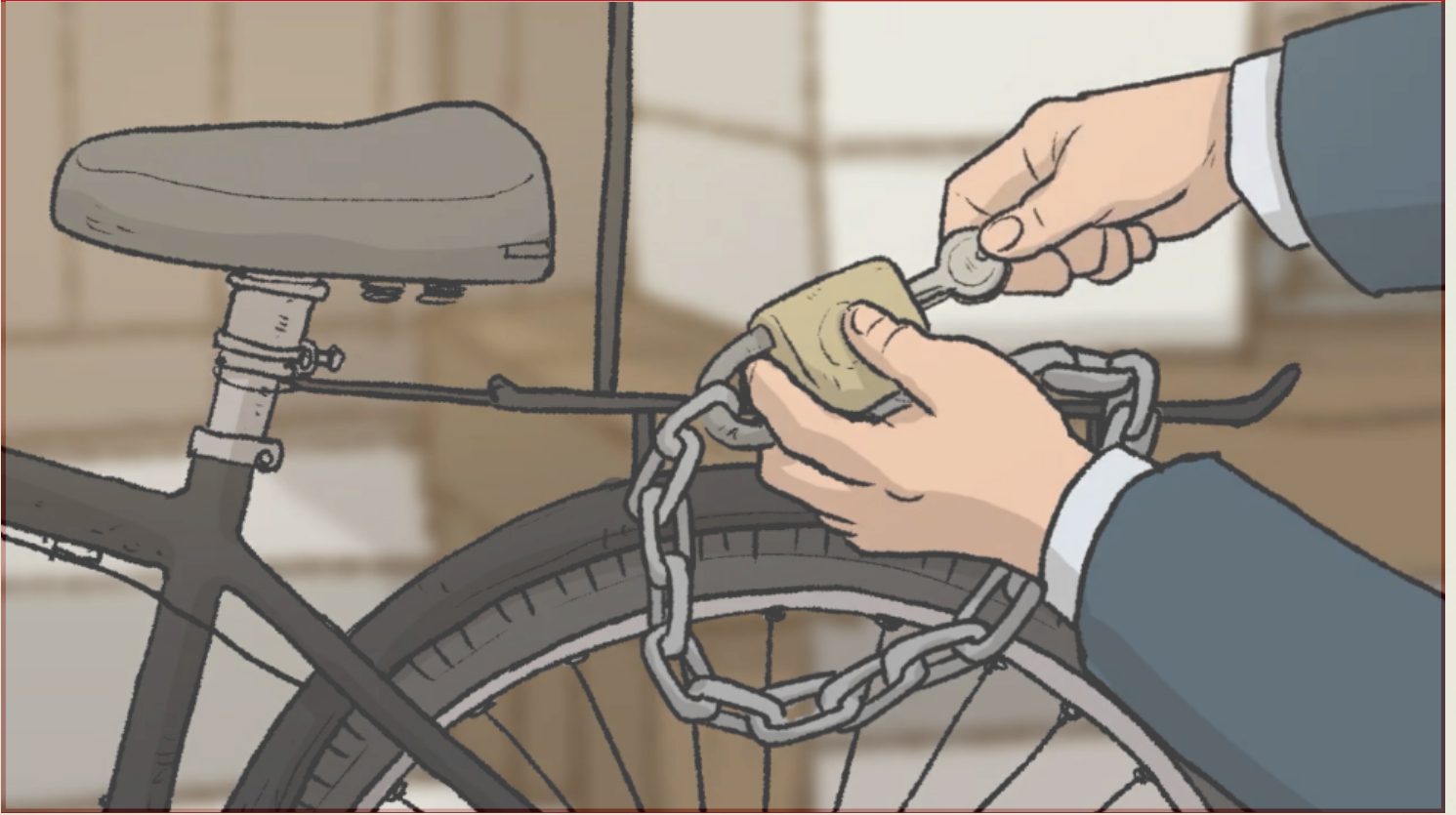
기도하기

- 1)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 2)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 3)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분노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최후(죄 값)



1인 가정예배 영상



★지난 주 죄 값 도서 목상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목요일입니다.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최후를 준비하시는 이야기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읽기 : 마가복음 14장 22~26절 / 쉬운성경

22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23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24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25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26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찬양 : 아무 흠도 없고



묵상 찬양 영상

- | | |
|---|---|
| 1. 아무 흠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 4.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
| 2.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 5.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뵈겠네 |
| 3.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 6. 우리 그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

말씀 이해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그 희생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묵상

사순절은 회개와 성찰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나의 몸, 나의 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 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만찬을 우리도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기

- 1) 감당할 수 없는 큰일, 또는 어려운 일을 함께 짊어지거나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 2)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 1)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 2)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평화와 화합을 이루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소서

십자가(감당)



1인 가정예배 영상



★지난 주 도망 도서 목상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금요일입니다.

도망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야기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읽기 : 마가복음 15장 24~26, 33~37 / 쉬운성경

24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25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26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33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4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35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36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 주는지 봅시다." 37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의 찬양 :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묵상 찬양 영상

말씀 이해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의 사형선고가 예수에게 내려졌다는 소식이 온 거리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다니며 채찍에 맞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 뱉음과 조롱당하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끝내 골고다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였으며 그는 신성모독으로 죽어 마땅한 자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고통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외침을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이 큰 죄를 지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기 육체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과 용서를 우리 또한 삶에서 나타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하기

- 1)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요?
- 2)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누명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기도하기

- 1)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내 평생에 감사하게 하소서
- 2)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용서로 죄 사함 받았음을 알고,
나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 3)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 안에 나와 내 가정과 온 교회가 거하고 누리므로,
주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소서

무덤(아버지께)



1인 가정예배 영상



★지난 주 아버지께 도서 묵상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토요일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리인 무덤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읽기 : 마가복음 15장 46~47 / 쉬운성경

46요셉은 긴 베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47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곳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찬양 : 주님 곁으로



묵상 찬양 영상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만을 더 알게 하소서

말씀 이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지냅니다. 요셉이 무덤을 봉인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거운 돌로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죽음과 끝, 철저한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을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당장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두려움, 죄책감, 절망의 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막힌 길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결국, 무덤의 어둠과 봉인된 돌은 단지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비슷한 순간을 만날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기

- 1)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겪어본 기억이 있나요?
- 2)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기도하기

- 1) 무거운 돌이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캄캄하고 짙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 2)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 3)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Note

2025 사순절 가정예배

함께 만드는 가정예배

가정예배에 참여하시고 느끼신 점을 적어주세요.

참고하고 더 좋은 가정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가정예배 설문지는 사진을 찍어 '가정예배 조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QR 설문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점

가정예배를 드리며 **좋았던 점**을 적어주세요.

아쉬웠던 점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바라는 점

이후 제작될 가정예배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안양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



HOME PAGE www.anyangch.net
YOUTUBE www.youtube.com/안양교회TV